결핍은 극복하지 말고 대체하자

(민11:4~15)

4.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7. 만나는 깟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결핍은 극복하지 말고 대체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결핍은 극복하지 말고 대체하자'

미국에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소방관들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는데, 20~25%가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자동차 충돌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중에 소방관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이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중에 80% 가까이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데, 안전벨트를 할 경우에 90% 이상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안전을 중시하는 소방관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현장으로 달려가다 5분의 1이나 죽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소방관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결핍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핍감에 마음이 지배되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시간 결핍에 대한 강박증입니다. 일단 경보가 울리면 지금 화재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가서 구해야 한다는 숭고한 마음이 생깁니다. 참 귀하고 고맙게 여겨지는 마음인데, 그 마음 때문에 시간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야 한다는 일에는 집중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부작용으로 다른 중요한 일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드러나고 이것을 터널링(tunneling) 효과라고 합니다. 터널 안에 들어서면 들어오는 구멍을 제외하고는 다 캄캄합니다. 무엇인가 결핍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핍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말고도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아가씨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껴서 외모의 결핍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뚱뚱하다는 외모의 결핍을 느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아가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미팅 장소에 먹음직스러운 쿠키가 놓여있고 커피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아가씨는 회의 내용의 절반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쿠키를 보면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생각하느라고 회의석상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절반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 소방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같은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결핍의 경제학”으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공저한 책으로, 사람이 결핍증을 느낄 때에 마음에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고, 행동과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결론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집중이라는 것을 뒤집어보면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지배당함으로 터널링 효과로 인해 삶의 균형이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핍이 집중의 효과와 에너지를 내는 것이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면 그것을 얻겠다는 갈증과 욕망이 크게 작용하면서 추진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과 개선을 위한 강한 욕구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삶의 균형을 깨서 IQ가 낮아질 수도 있는 문제로까지 발전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IQ를 재보면 사탕수수를 수확할 때보다, 수확하기 이전의 돈에 쪼들리던 한 달 동안에는 돈의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에 9~10%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IQ조차도 위축되고 모든 정신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결핍감의 문제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삶을 생지옥으로 만듭니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면 결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결핍감을 느끼되 올바르게 대처하면서 결핍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결핍감을 느끼고 있고 그 중압감 아래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에는 신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핍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앙은 얘기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신앙은 ‘결핍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결핍을 대체하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쪼들릴 때에 쪼들리는 것이 돈이 아니라 다

른 것인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나는 돈에 쪼들리고 있는데 돈의 결핍감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으로 대체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는 아가씨가 외모가 부족하다는 결핍감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분히 와 계시지 않기 때문이므로 하나님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세상에서 결핍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 삶에서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에 섞여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되어 울면서 결핍감을 호소합니다. 만나만 먹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고기를 제공해달라고 합니다. 탐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 부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상에서 마음이 육체의 5감관이 포착하는 이 지상의 것에 닿아서 반응할 때에 탐욕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 결론부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시는데 이 ‘악’이 마음이 육체의 5감관으로 포착한 대상에 대해 가서 닿고 반응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이 실제로는 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월급 받고 살아갈 때에 돈이 좀 부족하면 이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 정도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탐욕입니다. 약1:15절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 이끄는 탐욕입니다. 특별히 내 몫의 유산 말고도 동생의 유산까지 빼앗아 가려는 것만이 탐욕이고 욕심이 아니라, 5감관인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로 만나게 되는 대상에 내 마음이 향하고 닿게 되는 모든 것이 탐욕이고, 거기에 반응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살지 말라는 것이냐’고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살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5감관으로 포착하는 것에 마음이 닿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이 체질이 되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5감관으로 포착하는 지상의 것들을 향해있고 가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대로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대로가 만들어졌으므로 다 그 길을 타고 들어가는데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결핍감에 마음이 지배되어 버리고 나면 결정적으로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폐단 중에 선민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막대하게 나타납니다. 선민에게 결핍감이 나타나고 마음이 지배되어 버리면 선민에게 나타나는 터널링 효과는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욱 큰 손해를 가져오는데, 이 지상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적 계획이 무시당하고 맙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달려가면서 시간결핍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실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5감관으로 무엇인가를 포착합니다. 어떤 결핍을 포착하든지 간에 5감관으로 포착하는 결핍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마음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실존의 상태입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 육체의 오감관이 포착하는 대상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우리 마음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삶의 순간이 진행됩니다. 이때에 육체의 5감관으로 포착되는 것을 마음이 선택해서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등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민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5감관으로 포착된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5감관으로 포착되는 결핍에 연동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5감관으로 포착된 결핍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왜곡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척결해 내야합니다. 꼭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거부하고 그런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목사님의 말씀은 삶에서 느끼는 결핍을 극복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결핍감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거부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세요. 목사님이 아직도 세상적인 결핍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의 결핍과 부족함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하고 있다면 그분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광야에서 계속 만나만 주시므로 실증이 날 수 있고 고기의 결핍의 갈증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주시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줍게 하십니다. 10호멜은 2200리터를 말합니다. 1리터짜리 물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2200개입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33~34절에 그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탐욕부린 자들을 다 죽이시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려면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고기가 없어서 오랜 기간 못 먹게 되면 결핍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적당한 때에 미리미리 고기를 주시면 좋았는데, 출애굽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먹여 살리신 선민들을 진노하시고 죽이시는 불행한 결과로 까지 갔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집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끼니를 준비할 때 보면 오늘은 뭘 준비해야 맛있게 먹을지 생각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 탐욕을 부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신6: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힘'이 무엇입니까? 힘은 대부분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채우고 극복하는데 쓰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결핍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쏟으라는 것이고 바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결핍의 집결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결핍 덩어리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만 먹이시니 오죽 결핍이 크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핍이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 같았으면 고기를 사러 나가든지 고기를 사기 위한 돈을 벌든지 했을 텐데, 광야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에너지를 우는 데에 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결핍에서 느끼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먹고 싶다고 갈망하고, 돈이 없다고 느껴서 돈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돈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식의 성적에 대한 갈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외모에 대한 갈증으로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으로 배 부르라'는 것으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주울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선민의 결핍의 의미는 결핍감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내 마음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은 선민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결핍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그 결핍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으로 배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장면이 무척 먹고 싶은데, 친구가 한턱낸다면서 한우 갈비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우 갈비를 잔뜩 먹은 사람이 자장면을 못 먹었다고 한이 맺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자장면이고 외모나 자식의 성적도 자장면이고 하나님은 갈비구이입니다. 하나님 먹으면 40일 광야에서 주님처럼 금식을 해도 떡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먹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 마음이 끼어 있는 상태가

실존의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삶에서 결핍한 것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쪼들릴 때에 누가 좀 돈을 가져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갈증이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내 경제상황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돈은 나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닙니다. 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엔 없습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내용과 갈증을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에너지의 내용을 쏟아버리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것을 바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선민들에게 결핍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돈에 쪼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까짓 IQ는 머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못 주시겠습니까? 건강도 못 주셔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외모도 왜 김 태희나 장 동건 같지 않을까요? 머리를 짧게 깎으니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더워서 짧게 자르다가 잘못돼서 다 잘랐습니다.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속이 상합니다. 실수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진 것입니다. 이 꼴로 무슨 말씀을 전하나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말씀을 전해야지, 잘 생긴 얼굴 보기 좋은 얼굴로 말씀을 전하면 뭐하냐?'라고 하면서 바꾸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이 하루 이틀 쌓이다보면 십자가 생활화를 계속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삶에 대해서 결핍감을 느끼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돈도 없고 외모도 없고 자식도 별로인데 결핍감을 못 느낍니다.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지 않느냐? 결핍을 느껴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결핍을 느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창조력 추진력 성취력은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에서 나온 것은 항상 그늘이 있습니다. 터널링 현상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그 그림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발적인 창조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창조성에 의한 발전은 터널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늘이 없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핍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5감관으로 포착되는 모든 결핍에 등 돌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이 지속됨으로 결핍자체가 아예 없는 삶을 사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